

‘군대軍隊 아닌, 군대軍大’

민·관 앞다퉀 병영독서 지원 열기... ‘선진병영문화의 견인차’
국방의무 힘쓰는 젊은이들에게 ‘사회교육 기회제공’

205곳은 연 1회 10종의 진중문고 지원과 매월 5종의 정기간행물만을 지원받는다. 예산이 편성된 43 곳이라고 해서 나올 것도 없다. 편성 제대가 군단급 이상이어서 장병들의 병영독서를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방비 예산 대비 진중문고 예산은 0.0006퍼센트, 장병들의 식사 후 먹을 거리에 사용되는 1년 예산은 1,000억 원을 들이면서도, 정신적 허기를 충족할 도서구입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하니, ‘삶의 질 개선’이라는 국방부의 구호가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민간단체 앞장서 병영도서관 건립, 병영독서 이끌어

최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군내 병영도서관 건립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 가운데 1999년 발족된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의 행보는 주목되는 바가 크다.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는 전군 모든 부대에 한 곳 이상(5,000곳)의 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병영도서관 건립 운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거름, 더난, 들녘, 살림, 생각의나무, 열림원, 인디북, 청년정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주최한 ‘병영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조동성(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병영독서의 필요를 다음의 3가지로 설명했다. ▶병영독서는 긴박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상황판단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며 ▶준비된 사회인으로 전역, 개인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상승시키며 ▶신체 단련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에서 덕행을 함양시켜 전인교육을 완성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병영독서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 2004년 국방부 정훈실에 따르면, 군내 병영도서관 운용은 육군 9퍼센트, 해군 22퍼센트, 공군 59퍼센트에 불과하다. 예산이 편성된 곳은 43곳이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신 등 국내 많은 출판사가 도서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또한 인상적이다.

육군 전방사단 통신대대 ‘전진도서관’을 시작으로 보병대대 ‘병영도서관’까지,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모두 29곳의 병영도서관을 건립했다. 도서관 건립에만 그치지 않고, 조창인, 한비아 등의 유명 저자를 부대로 초대해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독서의욕을 고취시키는 내실 있는 사후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

부' 민승현 본부장은 "사회와 동떨어져 정체된 곳이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성원 속에 자신을 진정으로 계발할 수 있는 곳이 군대가 되어야 한다", "입시와 경쟁, 취업과 생존이란 생활인으로서의 긴장이나 이해관계를 벗어나 자신을 관조할 수 있는 공간이 군대"라며 병영도서관 지원의 의미를 밝혔다. '사랑의책나누기 운동본부'는 개그맨 서경석, 농구스타 김승현을 모델로 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며 국민캠페인에 나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종교단체 한몫, 지방자치단체도 중요성 인식

종교단체의 병영독서 후원도 활발하다. 원불교는 2001년 4월 '은혜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를 발족해 병영독서를 지원해 오고 있다. 각 교구의 교도들이 합심해 새책과 헌책을 자발적으로 기증하고 있으며, 책을 내지 못하지만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도들은 한 구좌(5,000원)의 현금으로 동참하고 있다.

원불교는 '은혜의 책보내기 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35만 권의 책을 육해공군 대대급 100여 개 부대에 지원하고 있다. 주력 지원 대상은 수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산간 오지 부대를 택했다. 한편 책 나누기 운동뿐만 아니라 병영도서관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중동부전선 최전방 산골지역에 자리한 육군 승리부대에 병영도서관 15개를 건립,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권도원 본부장은 "모든 군인들이 제대할 때까지 적어도 세 권씩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책 보내기 운동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산도의 참여도 그에 못지않다. 안산경찰서 도서관 건립행사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증산도는 병영독서를 부지런히 지원해 오고 있다. 매년 대여섯 곳의 병영을 선정, 증산도는 각 1,000여 권의 책을 지원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가 청년들의 것이라면, 국방의 의무에 힘쓰고 있는 군인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도 한몫을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3군사령부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군·경 희망도서 5만5,000권을 전달하는 도서기증식을 가졌다. 지리적 특성상 국방 및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내에 복무하는 군장병 및 전·의경들의 헌신적 대민지원활동에 대한 보답으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의 시범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색은 군장병과 전·의경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중심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협조와 군·경 관계자, 도의원, 민간도서전문가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추천도서목록을 작성, 이를 기초로 현지부대에서 장병들의 희망 도서를 신청받아 부대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도서가 선정되도록 했다.

또 하나의 병참기지, 병영도서관이 속속 건립되며 많은 장병들이 독서로 자신을 무장하고 있다. '한가롭게 책 읽는 군인'이란 낡은 인식은 이제 없다. 책을 읽는 장병들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병영문화를 만들어가는 단체들의 노력에 오늘 '군대軍隊'가 '군대軍大'로 바뀌고 있다. **한민**

취재 | 박용두 기자·사진 제공 |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건립한 병영도서관

도서관명	부대
전진도서관	육군○○부대 통신대대
으뜸도서관	육군○○부대 의무대대
지혜의샘 도서관	육군○○부대 수색대대
도라도서관	육군○○부대 ○○연대 2대대
쌍용도서관	육군○○군단
쌍용공병도서관	육군○○공병여단
일월성도서관	육군○○부대 ○○연대 2대대
책사랑도서관	육군2258-301부대
독수리도서관	육군○○부대 ○○연대 3대대
비승도서관	육군○○작전사령부 정훈공보부
열쇠표범도서관	육군○○부대 ○○연대 1대대
지혜의샘터 도서관	육군6536부대
적목마을도서관	
돌격도서관	육군2258-201부대
선봉도서관	해병○○부대 제○○연대
필승전단도서관	해군○○함대
APM도서관	안산경찰서
열차부대 도서관	국군의무사령부 병원열차부대
보라미도서관	서울구치소 제1902경비교도대
참사랑도서관	육군○○부대 ○○연대 2대대
흑룡연봉도서관	해병대 흑룡부대
사자도서관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결전사자도서관	육군 3692부대
삼학도서관	해군○○함대 목포해역방어사령부
청도개비도서관	육군3789-3대대
진중도서관	국방대학교 군무지원대
울릉독도도서관	경찰 울릉경비대
광개토태봉도서관	육군○○통신단
병영도서관	육군○○부대 3대대